

고문헌 고찰을 통한 중국 가로수의 역사에 대한 연구*

종타오* · 안계복**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 대구가톨릭대학교 조경학과

A Study on the History of Chinese Roadside Tree through Old Literatures Review

Zhong Tao* · Ahn, Gye-Bog**

* Graduate School of Daegu Catholic University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egu Catholic University

ABSTRACT

For a systematic research of the history of Chinese roadside trees, this study analyzed various ancient writings of China according to following topics; the philosophical backgrounds and diverse species of Chinese roadside trees in different periods, as well as the management systems and existent remains of ancient Chinese roadside trees. The analyses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the thoughts from Lao-tzu, Chuang-tzu, Mo-tzu, Mencius and Guan-tzu from Hundred Schools of Thought of Warring States Period had laid certain impact on the fundamental attitude of the Chinese roadside tree management system. Secondly, various and different species of Roadside Trees were planted from each time period: amongst all, Willow trees were the most common, and Pine trees to be the next common. Besides, fruit trees such as peach trees and plum trees had been largely selected as roadside trees from the Zhou dynasty to the Ming dynasty. Thirdly, the names of roadside trees and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managed the roadside trees were different in each era. Fourthly, the oldest existent remain of roadside trees in China, which dates back over 2000 years, is located in Jiange Cuiyun Corridor of Sichuan province.

Key words: Appellation, Dike, Hundred Schools of Thought, Management System, Remains, Roadside Tree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 가로수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사상적 배경과 각 시대별 가로수의 식재 수종, 그리고 가로수의 관리제도 등에 대한 고문헌들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 가운데 노자, 장자, 묵자, 맹자, 관자의 사상이 중국의 수목과 가로수의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시대별 가로수의 수종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가장 많이 심겨진 수종은 버드나무류, 그 다음은 소나무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周)나라 때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 같은 유실수(有實樹)가 가로수로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로수의 명칭과 가로수를 담당하던 관리는 시대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현재 중국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가로수 유적으로는 약 2,000년이 된 사천성(四川省)의 검각취운랑을 들 수 있다.

주제어: 관리제도, 명칭, 유적, 제방, 제자백가,行道수

* 이 연구결과물은 2017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Ahn, Gye-Bo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Daegu Catholic University, Gyeongsan-si, Gyeongbuk, 38430 South Korea, Tel.: +82-53-850-3190, E-mail: gbahn@cu.ac.kr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로수는 기원전 10세기 경에 만들어진 인도의 캘커타에서 아프가니스탄의 국경에 걸쳐있는 도로에 있는 것으로서, 이 도로의 일부는 돌로 포장되었으며 중앙과 좌우에 3열의 가로수가 연속적으로 식재되었다[1]. 중국에서는 주(周)나라(BC 1046-249) 때부터 가로수에 관한 기록이 있어 약 2,700년 정도의 오랜 역사가 있다.

중국 가로수의 역사에 대한 연구는 羅桂環 and 汪子春(1986)[2]이 여러 가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가로수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서술한 바 있다. 遊修齡(1996)[3]은 중국의 고대 가로수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회화나무와 버드나무(槐柳)¹⁾의 상징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劉錫濤(1999)[4]는 가로수와 제방 숲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였다. 鄭輝(2013)[5]는 고대 가로수의 관리방법과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한국에서는 Park and Kim(2000)[6]이 강릉시의 가로수 식재 체계를 수립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Forest Service(2003)[7]은 가로수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또한 Forest Service(2009)[1]는 가로경관을 평가하여 가로수의 모델 개발과 가로수의 관리 매뉴얼을 작성한 바 있다. Seoul City Hall(2009)[8]는 서울시 가로수 식재 현황을 분석하고 연차별 가로수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중국의 가로수 역사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시행한 바가 없고, 일부 보고서에서는 중국 가로수의 역사에 대해 잘못된 기술한 부분들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문헌 분석을 통해 중국의 가로수 역사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가로수 원형경관 회복에 밑바탕이 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중국 가로수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섯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제자백가들의 사상으로부터 수목이나 가로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상적 배경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시대별로 가로수에 관한 기록을 분석하여 시대별 가로수 식재 수종의 특징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중국에서 가로수의 명칭이 시대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시대별로 가로수의 명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시대별 수목 관리제도를, 다섯 번째는 가로수를 담당하는 관리부서와 관직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여섯 번

째에는 현존하는 가로수의 유적을 통해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중국에서는 가로수의 역사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천했는지를 분석 및 고찰한다는 것은 앞으로 가로수의 원형경관 회복에 좋은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II. 결과 및 고찰

1. 사상적 배경

중국의 제자백가 사상 가운데 가로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상은 없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 사상은 중국 문화의 기초가 되었을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현대의 중요한 개념인 “환경보호”라는 개념도 이미 제자백가 사상을 기초로 하여 발전되었음을 분석할 수 있는데, 가로수에 대한 개념도 중국의 제자백가 사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찰해 보고자 한다.

고대로부터 삼림은 사람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가지기도 하였다. 『좌전(左傳)』 소공 16년(昭公十六年)[9]에서 볼 수 있듯이 울창한 삼림은 사람들에게 신비감을 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목에 축복을 기원하거나(祈福) 기우제(祈雨祭)²⁾를 지내는 등 토tem적 의미를 부여하고 숭배하였다.

관자(管子, BC 719-645)[10]는 임업생산이 국가를 강성하게 만들고 백성을 부유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업을 권장한 사람이다. 관자는 백성들에게 일 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이고, 십 년의 계획은 수목을 심는 것이며, 인재양성은 백 년 계획(壹年之計莫如樹谷 十年之計莫如樹木 百年之計莫如樹人)이라고 식수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관자도 맹자와 마찬가지로 ‘이시금발(以時禁發)’, 즉 시금을 주장하였다. 관자는 비록 산림이 가깝고 초목이 울창하더라도, 산림을 개발하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때가 있어야 한다(山林雖近 草木雖美 禁發必有時)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관자는 실제적으로 가시나무(荊棘)를 심어서 토지를 유지하여야 하며, 측백나무와 백양나무를 혼식해서 제방이 무너지는 것을 대비하라고 주장하였다(樹以荊棘 以固其地, 雜之以柏楊 以備決水).

노자(老子, BC 571-471)[11]는 수목의 성장과 죽음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한 아름이나 되는 나무도 작은 싹에서 자라며(合抱之木 生於毫末), 만물초목은 연약하게 살지만 그것이 죽으면 마르고 딱딱하게 굳는다(萬物草木之生也柔弱 其死也枯槁)고 하였다. 또한 군대가 위세를 부리면 승리 할 수 없고 수목이 역세면 쉽게 부러진다(兵強則不勝 木強則兵)는 자연의 깊은 진리를 인식하였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연에 제한 없는

개발을 행할 수 없다(將欲取之 必姑與之)라는 주장의 사상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욕심이 많으면 현혹되기 때문에, 성인은 하나의 도를 지켜서 천하의 모범(多則惑 是以聖人抱一爲天下式)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묵자(墨子, BC 468-376)[12]가 세운 묵학(墨學)은 유가와 함께 그 당시의 현학(顯學)으로서 존중되었다. 묵자는 대규모 토목 공사와 삼림자원의 남벌에 반대하여 '절용(節用)', '절장(節葬)', '비공(非攻)' 등을 주장하였다³⁾. 이러한 묵자의 '절용', '절장', '비공' 주장은 후세 농업과 임업의 생산과 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절용(節用)이란 '건물은 사방으로 찬바람과 냉기를 막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지붕은 눈비와 서리와 이슬을 막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중략) 궁궐 담장은 남녀가 분별할 정도면 된다(其旁可以圍風寒 上可以圍雪霜雨露... 宮牆足以爲男女之別 則止)'라고 하였다. '절장(節葬)'은 당시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으로, 관(棺) 두께를 3촌(약 10cm)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묵자는 겸애설(兼愛說)의 하나로 '비공(非攻)'을 주장하였다. 군대가 출정하려면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춥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만 출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봄에는 백성들이 농사와 식재를 못하게 될 것이고, 가을에는 수확을 못하게 된다(春則廢民耕稼樹藝 秋則廢民獲斂)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을 회피하고 자기 나라의 농업과 임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주장하였다.

맹자(孟子, BC 372-289)[13]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행동을 금지하는 '시금(時禁)'을 주장하였다. 맹자는 농사를 제 때에 짓지 않으면 좋은 양식을 계속 먹을 수 없고, 적당한 그물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지 않으면 고기를 계속 잡아먹을 수 없고, 적당한 시기에 도끼를 들고 산림에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목재를 계속 얻을 수 없다(不違農時 谷不可勝食也. 數罟不入滸池 魚鱉不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也)는 주장을 하였다. 즉 삼림자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시금'을 시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장자(莊子, BC 369-286)[14]는 노자의 사상을 계승하여 '만물일체(萬物壹體)' 사상을 주장하였다. 즉 나와 천지가 공존하고 나와 만물은 하나라는 사상(天地與我並生 萬物與我爲壹)과 '천인합일(天人合壹)' 사상을 주장하였다. 이 사상은 곧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개발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2. 시대별 문헌 분석

1) 하(夏: BC 21세기-BC 16세기)

상고시대 지도자 하우(夏禹, ?-?)는 아버지의 치수 사업을 계승해서 국토와 홍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병합해서 중

합적으로 다스리고자 하였다. 「사기(史記)」[15]에 따르면 하우는 13년 동안 집 밖에서 살았으며 3번이나 집 앞을 지나가면서도 집에 들르지 않을 정도로 노력한 끝에 '9개의 주(州)를 열었고, 9개의 도로를 개통시켰으며, 9개의 호수 제방을 축조했고, 9개의 산을 측량했다.'⁴⁾는 기록이 있다.

2) 주(西周: BC 1046-BC 771, 東周: BC 770-BC 249)

중국 역사상 가로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한비(韓非, BC 280-233)가 쓴 「한비자(韓非子)」[16]에 나온다. '자산(子產, ?-BC 522)은 5년 동안 정치를 잘해서, 국내에는 도적이 없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았다. 도로 양쪽에 복숭아(桃, *Prunus persica*)와 대추(棗, *Ziziphus jujuba*)가 주렁주렁 열렸지만 사람들이 따먹지 않았다⁵⁾'라고 기록되어 있다.

BC 450년에 좌구명(左丘明, BC 502-422)이 쓴 「국어(國語)」[17]에 의하면, 주나라에서는 외부 도로인 표도(表道)에 나무를 열식 한 다음, 행정단위의 최소로 볼 수 있는 마을(鄙, 비)을 설치하고 도로를 지키게 하였다(守路)⁶⁾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BC 468년에 쓰여진 「좌전(左傳)」[18]에 의하면 '제후들이 정(鄭)나라를 공격했을 때, 기(杞)나라와 예(郕)나라의 군대가 조무(趙武), 위강(魏絳)을 따라서 도로 양쪽의 밤나무(栗 *Castanea crenata*)를 베었다.⁷⁾'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밤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진(秦: BC 221-BC 207)

BC 239년 진나라의 승상 여불위(呂不韋, BC 292-235)가 편찬한 「여씨춘추(呂氏春秋)」[19]에는 '구렁을 형성하면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이(穴者) 안심할 수 있으며, 수심이 깊은 심연(深淵)을 형성하면 물고기가 안심할 수 있으며, 소나무(松, *Pinus*)와 측백나무(側柏, *Cupressaceae*)가 무성해지면 행인(塗之人)들이 나무그늘에서 쉴 수 있다'라는 기록⁸⁾이 있다.

83년에 한시대 반고(班固, 32-92)가 쓴 「한서(漢書)」[20]에 의하면 '진(秦)나라의 천하각지로 통하는 도로를 건설하였는데, 동쪽은 연(燕)나라와 제(齊)나라까지, 남쪽은 오초(吳楚)까지, 강이나 호수 위까지, 동해안 어디에나 다다르는 도로를 건설하였다. 도로의 폭은 37.5m인데 10m마다 소나무를 식재하였다⁹⁾'라는 기록이 있다.

서한시대 유향(劉向, BC 77-6)이 쓴 「신서(新序)」 선모하(善謀下)[21]에 의하면 '진(秦)나라의 장군 몽염(蒙恬, ?-210)은 호나라(胡)를 공격하여 수천 리의 땅을 확보하며 강으로 국경을 삼았으며, 돌을 쌓아 성(城)을 만들고 비솔나무(榆, *Ulmus pumila*)¹⁰⁾로 요새를 구축하였다¹¹⁾'는 기록이 있다.

4) 한(西漢: BC 202-9, 東漢: 25-220)

중국의 한나라 시대가 되면 가로수는 전국적으로 도시와 도

시를 연결하는 도로에 식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내부 도로에도 식재되었다.

한나라 때의 수도인 낙양에는 도로 양쪽에 오동나무(桐, Paulownia)와 개오동나무(梓, *Catalpa ovata*)¹²⁾를 식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사마천의 「사기(史記)」[22]에는 자두나무(李, *Prunus salicina*)와 복숭아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가 생기게 되었다¹³⁾는 기록도 있다.

5)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222-589)

「진서(晉書)」[23]에 의하면 362년 진(晉)시대 말기 전진(前秦)의 황제 부견(苻堅, 335-385)은 장안부터 각 지역에 이르기까지 도로 양쪽에 회화나무(槐, *Sophora japonica*)와 버드나무(柳, *Salix*)를 심었고, 장안 성내 큰 거리에는 회화나무와 수양버들(楊柳, *Salix babylonica*)을 심었다는 기록¹⁴⁾이 있다.

6세기에는 가로수가 이정표로서 중시되었다. 이 당시 도로의 이정표는 흙더미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자주 유실되었다. 그래서 「주서(周書)」[24]에는 1리마다 나무 1그루를 심고 10리마다 3그루 심고, 100리마다 5그루를 심으라는 명령을 황제가 내린 기록¹⁵⁾이 있다.

6) 수(隋: 581-618)

수양제(楊廣, 569-618)는 낙양부터 양저우까지 대운하를 팠다. 「수서(隋書)」[25]에 의하면 운하 주변에 도로를 건설하고 버드나무를 심었다¹⁶⁾. 버드나무를 식재하면 제방을 견고하게 할 수 있고 행인들은 그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래서 당나라 시대 시인 두목(杜牧, 803-852)이 지은 「수제류(隋堤柳)」[26]라는 시에는 '강변 양쪽에는 수양버들이 삼백리나 되네¹⁷⁾'라는 표현이 있다. 같은 시대의 시인 백거이(白居易, 772-846)가 쓴 「수제류(隋堤柳)」[27]라는 시에서 '수양제 양광(隋煬帝楊廣)이 대업(大業, 605-618)년간에 버드나무(柳)를 좁게 흐르는 하천변에 심었다¹⁸⁾'는 기록이 있다.

7) 당(唐: 618-907)

「전당문(全唐文)」[28]에 의하면 785-804년경 위남(渭南) 지방의 현위(縣尉)라는 직책을 가진 장조(張造, ?-?)는 가로수 보호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 가운데 한명이다. 장조는 조정으로부터 도로 양쪽의 비술나무를 베어 마차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장조는 가로수의 보존을 위해 온갖 변론을 다하였다. 또한 「시경(詩經)」에 나오는 '도끼를 들고 수목을 베는 것은 수목에 대한 애착 때문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라는 고사를 인용하면서 비술나무를 지켰다¹⁹⁾.

「당회요(唐會要)」[29]에서 740년에 황제는 두 수도를 잇는 도로에 과수를 심으라는 조서를 내렸다²⁰⁾. 또한 당나라 때에는 도읍의 환경 미화를 중요시하게 되어, 「책부원귀(冊府元龜)」

[30]에서 765년에 현재 서울시장 직책에 해당하는 경조윤(京兆尹)에 부임한 리간(黎幹, ?-?)이 성내 각 도로(六街)에 식재하였다²¹⁾. 시인 원유(王維, 701-761)가 쓴 「등루가(登樓歌)」[31]에는 푸른 회화나무와 마차(車馬)가 가지런하지 않고 들쭉날쭉하다²²⁾고 하였다. 또한 시인 조송(曹松, 830-903)[32]은 '도로 양쪽에는 복숭아나무가 많고 강변 따라 양쪽에는 버드나무의 색깔이 맑다²³⁾'라는 시를 남겼다.

또한, 815년에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²⁴⁾ 가운데 한 사람인 유종원(柳宗元, 773-819)은 유주(柳州)의 자사(刺史)로 강등되었다. 그러나 임기동안 백성들을 이끌어 유강(柳江) 서안에서 버드나무를 식재하였고, 그 결과는 여온(呂溫, 771-811)이 쓴 시 「조유주유자후(嘲柳州柳子厚)」[33]에 이러한 기록²⁵⁾이 남아 있다.

8) 송(宋: 960-1279)

송나라 때 소식(蘇軾, 1037-1101)이 쓴 「만송정(萬松亭)」[34]이라는 글에 의하면, 마성(麻城)의 현령 장의(張毅, ?-?)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 양쪽에 만 그루나 되는 소나무(萬松)를 식재하였고 이로 인해서 만송정이라고 불렀다는 기록²⁶⁾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가로수 식재를 잘하면 백성들로부터 인심을 얻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송나라 때 정부 관리자들은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덕(德)을 베푸는 정치로 여겼다. 「송사(宋史)」 신중보(辛仲甫, 927-1000)전[35]에 의하면 신중보가 버드나무 가로수를 심어 그늘을 만든 기록이 있는데, 후대 백성들은 이 버드나무를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가로수라는 의미로 '보결류(補闕柳)'라고 불렀다²⁷⁾. 또한 「송사(宋史)」 채양(蔡襄, 1012-1067)전[36]을 보면 7백 리 도로에 소나무를 비도수(庇道樹)로 심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고마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²⁸⁾

9) 원(元: 1206-1368)

선교사 마르코폴로(Marco Polo, 1254-1324)가 쓴 「동방견문록(1298)」[37]에 의하면 원나라 쿠빌라이(忽必烈, 1215-1294) 황제는 사신(使臣)이 지나가는 주요 도로 양쪽에 2보(약 3.08m)마다 큰 수목을 식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수목이 크게 자라서 먼 곳에서도 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행인들이 길을 잃지 않았다²⁹⁾. 원나라 시대의 법령인 「원전장(元典章)」[38]에 의하면 '수도, 주, 현의 성곽 주위, 하천과 배수로 양쪽, 도로 양쪽에 각 지역의 지형에 따라서 비술나무(榆), 버드나무(柳)와 회화나무(槐)를 식재하였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벌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³⁰⁾'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원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원사(元史)」[39]에 의하면 가로수를 심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담당

하는 기관인 대사농사(大司農司)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10) 명(明: 1368-1644)

서하객(徐霞客, 1586-1641)의 『서하객유기(徐霞客遊記)』가운데 초유일기(楚遊日記)[40]에 의하면 명나라 때 도주(道州)의 대로 양쪽에 소나무(喬松)를 심었는데, 심은 도로가 70리나 된다는 기록이 있다³¹⁾. 또한 유태화산일기(遊太和山日記)[41]에 의하면 도로 양쪽으로 수양버들을 심었는데, 그 뒤쪽으로 자두나무와 배나무(梨, *Pirus pyrifolia*)가 들쭉날쭉하게(參差) 식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³²⁾.

『명사(明史)』의 진선(陳瑄, 1365-1433)전[42]에서는 수상 운수를 편리하기 위해서 진선이 운하를 파고 행인의 편리를 위해 운하의 제방을 따라서 우물을 파고 수목을 식재하였다³³⁾. 기록이 있다. 또한 명나라 말기에 작성된 『명실록(明實錄)』의 명세종 실록(明世宗實錄)[43]에서는 '명세종이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변 양쪽에 수목을 식재하였다.³⁴⁾'는 기록이 있다.

11) 청(淸: 1616-1912)

청나라 초년에는 중국 영하평라(寧夏平羅)지역의 현지인 『평라기략(平羅記略)』[44]에 의하면 회농거(惠農渠)와 창운거(昌潤渠)에서 '강변 양쪽에서 수양버들(垂楊)을 모두 심어 만 그루 심었다. 나무 뿌리가 제방을 보호할 수 있다³⁵⁾'라는 기록이 있다.

1875년에 좌종당(左宗棠, 1812-1885)은 흠차대신(欽差大臣)으로 임명되어 신장(新疆)의 군대업무를 관리하였다. 또 각 군대로 하여금 평량(平涼)경내의 도로 양쪽에 버드나무(柳樹)를 심도록 명령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이것을 감사하기 위해 이 버드나무를 '좌공류(左公柳)'라고 불렀다. 중국 유신(維新)운동의 대표인물 담사동(譚嗣同, 1865-1898)이 쓴 시[45]에 의하면 '두 줄로 뻗은 큰 버드나무(高柳, 고류)가 하늘의 청색을 속박하였다.³⁶⁾' 또한 『별난주(別蘭州)』[46]에서도 '변경으로 가는 길에 두 줄로 식재된 버드나무(出塞柳)가 있다³⁷⁾.'라는 글이 있다. 청나라 장군 양창준(楊昌浚, 1825-1897)이 군대 업무 때문에 신장(新疆)에 갔을 때, 가는 길에서 식재된 수양버들(楊柳)을 보면서 '새로 심은 수양버들이 삼천리 길이 있는데, 봄바람을 이끌고 옥문관(玉門關)에 이른다³⁸⁾'라는 시를 쓰고 『좌공류(左公柳)』[47]라는 제목을 붙였다.

12) 시대별 출현 수종

지금까지 시대별로 나타난 가로수의 수종을 분석해 보면 버드나무가 9회로서 가장 많이 심겨졌던 나무 가운데 하나임이 나타났다. 그 다음이 소나무, 수양버들 각 5회, 복숭아나무, 비술나무, 회화나무 각 3회, 자두나무 2회, 대추나무, 밤나무, 측백나무, 오동나무, 개오동나무 그리고 배나무가 각각 1회로 나타났다.

Table 1. Road Tree Species Appeared at Different Era

Era	Species of the Road Trees
Zhou(周)	桃樹, 棗樹, 栗樹
Qin(秦)	松樹(2), 柏樹, 榆樹
Han(漢)	梧桐, 梓樹, 桃樹, 李樹
Weijin(魏晉南北朝)	柳樹, 楊柳樹, 槐樹(2)
Sui(隋)	柳樹(2), 楊柳樹
Tang(唐)	榆樹, 槐樹, 柳樹(2), 桃樹
Song(宋)	松樹(2), 柳樹
Yuan(元)	榆樹, 槐樹, 柳樹
Ming(明)	松樹, 李樹, 楊柳樹, 梨樹
Qing(淸)	柳樹(2), 楊柳樹(2)

또 다른 시대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주(周)나라 때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복숭아나무, 밤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배나무 등의 유실수(有實樹 8회)가 가로수로 많이 활용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 더 많은 고문헌을 조사하면 더 많은 수종들이 나타나겠지만, 지금까지 중국의 여러 가지 고문헌들을 분석해 본 결과, 현대에 쓰이고 있는 식물들과 고대 가로수에 쓰인 식물들과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로수의 시대별 명칭

중국 고대 가로수 명칭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장 오래된 기록인 주(周)나라 때 좌구명(左丘明)이 쓴 『국어(國語)』에 의하면 도로 양쪽에 심은 나무를 '표도수(表道樹)'라고 하였다.

한편, 여불위(呂不韋)가 편찬한 『여씨춘추(呂氏春秋)』에는 가로수의 명칭이 '음도수(陰道樹)'로 기록되어 있다. 가로수를 그늘 '음(陰)'자를 넣어서 '음도수'라고 부른 이유는 가로수의 기능 가운데 그늘 제공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까닭으로 보인다.

방현령(房玄齡)이 쓴 『진서(晉書)』에는 가로수를 '협도수(夾道樹)'라고 기록하였다. '협도수'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는 가로수가 큰 도로 양쪽에 끼고 있는 것(夾)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가로수보다는 도로가 우선인 개념으로 쓰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당나라 때 조송(曹松)이 쓴 시에서는 버드나무를 '어류(禦柳)'로 불렀다. 그 당시에는 황제의 권위와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 도로 양쪽의 나무를 '어수(禦樹)'라고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어(禦)'자를 황제가 사용한 물품에 붙였으므로 따라서 어수(禦樹)라고 하면 민간 차원의 가로수가 아니라 황제적 의미가 담긴 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로수를 심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재 활동이라기 보다는 덕을 베푸는 정치(德政)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Road Tree Appellation at Different Era

Era	Appellation
Zhou(周, BC 1046-BC 249)	表道樹[17]
Qin(秦, BC 221-BC 207)	蔭道樹[19]
Jin(晉, 265-420)	夾道樹[23]
Tang(唐, 618-907)	禦樹[32]
Song(宋, 960-1279)	庇道樹[36]
Ming(明, 1368-1644)	夾道樹[40]
Modern(現代, 1912-)	行道樹[48]

송나라 때 탈탈(脫脫) 등이 편찬한 「송사(宋史)」에 의하면 송나라에서는 가로수를 ‘비도수(庇道樹)’라고 하였다. ‘비(庇)’자가 비호(庇護)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으로 ‘비도수’는 도로를 뒤덮어서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명칭이다.

명나라 때 서하객(徐霞客)이 쓴 「서하객유기(徐霞客遊記)」에서는 가로수를 ‘협도수(夾道樹)’로 기록하였다.

근대 중국에서 ‘행도수(行道樹)’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쓰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1917년에 주연년(朱燕年, ?-?)이 국립 북경농업전문학교 교우회잡지에 발표한 논문 「시가행도수지연구(市街行道樹之研究)」, [48]가 가장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23년에는 도로월간(道路月刊)이라는 잡지에 발표된 논설 「행도수지응재식(行道樹之應栽植)」, [48]에서도 ‘행도수’라는 용어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1948년에는 李寅恭이 「행도수(行道樹)」, [49]라는 서적을 발간하였다.

현재 ‘행도수’라는 용어는 청나라 시대의 문헌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청나라 멸망(1912) 이후 1917년(1923년)에 행도수라는 관한 논문이 발표된 시기 즈음 ‘행도수’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시대별 수목 관리제도

1) 상고(上古 하, 상, 주, 춘추전국시대)시대의 관리제도

시대별로 수목관리나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고문헌에 자료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한된 문헌자료이지만 법령이나 기타 방법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 온 것인지를 고찰해 볼 필요성은 있다.

중국 상고시대에 이미 자연숭배사상의 영향으로 봉산(封山)과 벌목 금지 등 임업을 규제하는 제도가 나타났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관자(管子, BC 719-645)는 ‘시금(時禁)’으로서 자연자원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시금(時禁)’은 현재 중국에서 찾을 수 있는 최초의 관리제도이다.

선진(先秦)시대 규정한 예법을 기록된 대성(戴聖, ?-?)의 「예기(禮記)」 월령(月令)장[50]에 의하면 1월에는 벌목 금지,

2월에는 산불이 나지 않게 산림에서 활동 금지, 3월에는 뽕나무와 산뽕나무 벌목 금지, 4월에는 큰 나무 벌목 금지, 5월에는 남쪽에서 산불이 나지 않게 산림에서 활동 금지, 6월에는 우인(虞人, 관직)이 산림을 순찰하도록 함과 동시에 벌목을 금지하였다. 초목이 시드는 9월에는 목탄을 만들기 위한 벌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12월에는 난방을 위한 떨감(薪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당나라의 관리제도

당나라 653년에 반포된 법률 「영휘율소(永徽律疏)」, [51]에 의하면 정부나 민간(公私)이 소유한 나무나 작물을 훼손시킬 경우 절도죄로 처벌하였다고 한다. 또한 도로에서 불을 피우다가 화재를 일으켜서 타인의 수목, 주택, 재물을 태우게 되면 노역(勞役), 귀양(流放), 장형(杖刑)으로 처벌하는 엄격한 법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회요(唐會要)」, [52]에서 당대종(唐代宗, 726- 779)은 서면으로 명령을 반포하여 도로 양쪽의 토지를 파괴하거나 혹은 가로수를 베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여 도로 양쪽의 수목자원을 보호하였다.

3) 송나라의 관리제도

「휘진후록(揮塵後錄)」, [53]에 의하면 송나라의 태조(宋太祖, 927-976)는 나라를 통일한 후 와교관(瓦橋關) 일대 남북 접경 지역에 비술나무와 버드나무를 식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요나라(遼)의 군대를 방어하기 위해 중간 도로(中通)에 말을 탄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도록 나무를 심도록 하였다³⁹⁾.

「임업사화(林業史話)」, [54]에 의하면 송나라의 태종(宋太宗, 939-997) 때 요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래서 하북(河北) 지방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저수지와 제방을 개척하고 비술나무와 버드나무를 많이 식재하도록 하였다⁴⁰⁾. 또 송신종(宋神宗, 1048-1085)은 사람들이 도시를 건조하기 위해 강변의 비술나무와 버드나무를 많이 벌목했기 때문에 황하 양쪽에서 심겨진 비술나무와 버드나무를 지금부터 벌목 금지한다는 명령을 발표하였다⁴¹⁾.

4) 명나라의 관리제도

명나라 때 유천화(劉天和, 1479-1545)가 쓴 구소집(溝小集) [55]에는 ‘식류육법(植柳六法)’이라고 하여 제방에 버드나무를 식재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명나라 시대에 수목(가로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식재 방법이 동원되었다.

식류육법(植柳六法)이란 ① 눕혀서 식재하는 방법인 와류(臥柳), ② 식혈을 파고 삼목하는 방법인 저류(低柳), ③ 그루터기를 엮어서 식재하는 방법인 편류(編柳), ④ 물살이 급한

지역에 깊이 식재하는 방법인 심류(深柳), ⑤ 수물 지역 제방을 건조하기 힘든 곳에 소정류(위성류, 小檉柳)를 여러 층으로 밀식하여 자연적으로 제방을 형성하는 방법인 만류(漫柳), ⑥ 제방 안과 밖으로 굽고 긴 버드나무 그루터기를 열식하여 수년 후에 무성한 방호림(防護林)으로 만드는 방법인 고류(高柳), 이렇게 여섯 가지의 식재방법을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5. 가로수 담당 관리부서 및 관직

각 시대별로 가로수를 담당하던 관리에 대한 기록은 서주(西周) 시대 주공단(周公旦, BC 1100-?)이 편찬한 「주례(周禮)」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주(周)나라 때 가로수를 관리하는 관직으로 야로씨(野蘆氏)[56]를 두었으며, '야로씨(野蘆氏)는 국내 네 번방인 사기(四畿)에 다다를 수 있는 국도(國道路)를 담당하였다. 국가 국경(國郊)과 들판의 도로(野之道路)와 속소, 우물, 수목을 담당하였다⁴²⁾.'고 기록이 되어 있다.

장고(掌固)[57]는 가로수의 식재를 담당하는 관직인 반면, 야로씨는 가로수를 관리하는 관직이다⁴³⁾. 산우(山虞)[58]는 삼림과 수목의 별채 관리 관직이고 삼림에 대한 금령은 산우를 통해서 실시하였다⁴⁴⁾.

범녕(范曄, 398-445)이 쓴 「후한서(後漢書)」[59]에는 진(秦)나라 때에 장작소부(將作少府)를 설치하였고, 한(漢)나라 때는 장작대장(將作大匠)으로 불렸다. 종묘, 도로, 궁정, 능묘 등 토목공사를 담당하였고 도로 양쪽에서 오동나무(桐)와 개오동나무(梓)를 식재한다고⁴⁵⁾ 기록되어 있다.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기에는 위(魏)나라와 진(晉)나라가 한(漢)나라의 제도를 따라서 장작대장(將作大匠)을 설치하였다. 이 관직은 삼공구경(三公九卿)⁴⁶⁾의 아래에 위치한다. 「통전(通典)」[60]와 「진서(晉書)」[61]에 의하면 위진남북조시

대 남양(南梁)과 북제(北齊)가 관직 명칭을 다시 변경하였는데, 남양은 대장경(大匠卿)이라고 하였고, 북제는 장작사(將作寺)라고 하였다. 직책은 한나라의 장작대장과 같다.

후에 수(隋)나라 시기의 「수서(隋書)」[62]에 의하면 관리의 명칭이 대장경에서 소부(少府)로 변경되었지만, 담당하는 직무는 변함이 없었다.

당(唐), 송(宋) 시대부터 가로수의 전문 관직이 변경 되었다. 「신당서(新唐書)」[63]에 의하면 삼성육부(三省六部)⁴⁷⁾ 중의 공부(工部)에서 우부낭주(虞部郎中)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산수, 수목을 다루는 전문 관직이었다. 「명사(明史)」[64]에 의하면 명(明), 청(淸) 시대에는 공부의 아래 우형사(虞衡司)를 설치했다.

6. 현존하는 유적

1) 검각취운랑(劍閣翠雲廊)

중국 사천성(四川省)에 있는 검각취운랑[65]은 중국에서 제일 오래되고 잘 보존된 고대 도로와 가로수 유적이다. '삼백리 정심만수(三百裏程十萬樹)'으로도 불리는 이 도로는 진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도로의 길이는 총 172km(344리)인데 도로 양쪽으로 측백나무가 심겨져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측백나무는 모두 12,351그루나 된다. 취운랑에 있는 측백나무 가운데 제일 오래된 나무의 수령은 2,300년에 달하며 흉고직경은 2m 이상이다. 이 측백나무는 진시황 시대에 아방궁(阿房宮)을 건축하기 위해서 촉산(蜀山)에 있는 나무를 모두 벌목하여 민둥산이 되었다(蜀山兀, 阿房出)는 [66] 기록을 가지고 있다. 진시황이 주민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측백나무를 심은 것이 현존하고 있다. 또한 진시황 시대에 도로의 폭 37.5m에 10m마다 가로수를 식재(道廣五十步 三丈而樹)하라는 명령[20]에 따라서 식재한 것이기 때문에, '황백(皇柏)'으로도 불렸다. 이것이 현재 기록이 남아 있는 최초의 가로수 유적이다.

Table 3. Management Department And Official Post of the Road Trees at Different Era

Era	Management Department	Official Post
Zhou(周)		野蘆氏
Qin(秦)		將作少府
Han(漢)		將作大匠
Jin(晉)		將作大匠
Northern and Southern	將作寺	大匠卿
Sui(隋)		少府
Tang(唐)		虞部郎中
Song(宋)		虞部郎中
Yuan(元)	大司農司	
Ming(明)	虞衡司	
Qing(淸)	虞衡司	



Figure 1. Old Cypress Tree in Cuiyun Corridor[65]

또한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장군 장비(張飛 ?-221)가 파촉군(巴蜀郡) 태수로 있을 때 검각(劍閣)이 군사적 정치적 요충지를 있는 중요한 도로로 여겨 가로수를 심도록 명령하였다. 취운량에서 흉고직경이 1.8m 이상의 측백나무는 장비가 식재한 나무로 판단하여 '장비백'이라고 불렀다. 이 시대 이후에도 동진(東晉), 북주(北周), 당(唐), 송(宋), 명(明) 등의 시대를 거쳐 오면서 취운량에는 지속적인 식재 활동이 있었다.

2) 경향대운하(京杭大運河)

경향대운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고대 운하로서, 남쪽 항주에서부터 북경에 이르고 전체 길이는 1,794km에 달한다. 이 운하는 BC 486년 춘주 말기에 오(吳)나라가 북벌하기 위해 장쑤 양저우(江蘇揚州) 일대에서 운하를 축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에도 각 시대별로 이 운하를 지속적으로 축조하여 현재의 운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제방을 공고히 만들기 위해서 제방 양쪽에 수양버들을 심었다.

3) 서호 제방(西湖堤)

서호는 원래 전당강(錢塘江)의 한 부분이었었는데, 약 2,000년 전에 점점 내호로 형성되었다. 서호의 면적은 6.39km²에 달하는데 홍수를 막기 위해서 제방을 쌓았다.

서호에 있는 소제(蘇堤)는 서호삼제(西湖三堤) 가운데 하나로, 그 길이가 2.8km에 달한다. 『송사(宋史)』[67]에 의하면 북송 시대인 1089년에 소식(蘇軾 소동파)이 항저우 지주(知州)로 부임했을 때, 서호를 전면적으로 준설하였고 파낸 흙으로 제방을 만들고 제방 위 도로 양쪽에 수양버들과 복숭아나무, 꽃해당화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가 심겨져 있으며, 이들이 서호의 6개의 다리와 함께 서호를 대표하는 경치⁴⁹⁾가 되었다.



Figure 2. Floor Plan of the West Lake

또 다른 서호삼제(西湖三堤) 가운데 하나인 백제(白堤)는 당나라 822년에 시인 백居易(白居易, 772-846)가 항저우 자사(刺史)로 부임하면서 서호에 축조한 제방으로 버드나무를 많이 심었다. 백居易는 '보기 좋은 호수 동쪽을 더 돌아보려는데 백사제(白沙堤, 백제) 어느새 버들 그늘에 들어있네(最愛湖東行不足 綠楊蔭裏白沙堤)'라는 시를 남겼다. 백제의 전체 길이는 약 1km이며, 현재 길가의 안쪽에는 수양버들, 바깥쪽에는 복숭아나무가 심겨져 있다.

III. 결론

본 연구는 중국 가로수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상적 배경 분석, 각 시대별 문헌분석을 통한 가로수의 식재 상황, 수종, 그리고 가로수의 관리제도 등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춘추전국시대(BC 770-BC 221)의 제자백가 가운데 노자, 장자, 묵자, 맹자, 관자의 사상이 중국 가로수의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시대별 가로수의 수종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버드나무류가 가장 많이 심겨진 수종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소나무류로 나타났다. 또한 주(周)나라 때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복숭아나무 등과 같은 유실수(有實樹)가 많이 활용되었던 것이 특징이다. 이 연구 결과는 현대의 가로수 수종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로수에 대한 명칭은 시대별로 표도수(表道樹), 음도수(陰道樹), 협도수(夾道樹), 비도수(庇道樹), 행도수(行道樹) 등으로 쓰였다.

각 시대별로 가로수를 담당하던 관리는 주나라 때 야로씨(野蘆氏), 진나라 때 장작소부(將作少府), 한나라 때 장작대장(將作大匠), 남양 때 대장경(大匠卿), 북제 때 장작사(將作寺), 수(隋)나라 때 소부(少府), 당과 송나라 때 우부낭주(虞部郎中), 원나라 때 대사농사(大司農司), 명과 청나라 때 우형사(虞衡司)였다.

현재 중국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가로수 유적으로는 약 2,000년 전 진나라 때 기록을 갖고 있는 사천성(四川省)의 검각취운량을 들 수 있다.

주 1) 중국식물지(中國植物志)에 의하면 *Sophora*는 槐, 따라서 본 논문에서 槐는 회화나무로 표기.

주 2) 昔者湯克夏而正天下 天大旱 五年不收 湯乃以身禱於桑林.

주 3) 묵자의 주장 10가지: 尚賢, 尚同, 兼愛, 非攻, 節用, 節葬, 天志, 明鬼, 非樂, 非命

주 4) 開九州 通九道 陂九澤 度九山.

- 주 5) 子產退而爲政五年 國無盜賊 道不拾遺 桃棗廢於街者莫有援也.
- 주 6) 列樹以表道 立鄙食以守路.
- 주 7) 杞人 郟人從趙武 魏絳斬行栗.
- 주 8) 丘陵成而穴者安矣 深淵成而魚鱉安矣 松柏成而塗之人已蔭矣.
- 주 9) (秦)爲馳道於天下 東窮燕齊 南極吳楚 江湖之上 瀕海之觀畢至 道廣五十步 三丈而樹(중략) 樹以青松 1보는 0.75m, 50보는 37.5m, 1장(丈)은 10척이며 약 3.33m, 3장은 9.99m.
- 주 10) 중국식물지에 의하면 *Ulmus pumila*는榆.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榆는 비슬나무로 표기.
- 주 11) 其後蒙恬爲秦侵胡 以河爲境 累石爲城 樹榆爲塞 匈奴不敢飲馬北河 置烽燧然後敢牧馬.
- 주 12) 중국식물지에 의하면 *Catalpa ovata*는梓(재).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梓는 개오동나무로 표기.
- 주 13) 桃李不言 下自成蹊.
- 주 14) 自長安至於諸州 皆夾路樹槐柳(중략) 長安大街 夾樹楊槐
- 주 15) 令諸州夾道壹種壹樹 十裏種三樹 百裏種五樹焉 1裏는 500m, 10리는 5000m, 100리는 50000m.
- 주 16) 河畔築禦道 樹以柳
- 주 17) 夾岸垂楊三百裏
- 주 18) 大業年中煬天子 種柳成行夾流水
- 주 19) 近奉文牒 令伐官槐 若欲造車 豈無良木(중략) 且召伯所憩 尙自保全 先王舊遊 寧宜翦伐 思人愛樹 「詩」有薄言 運斧操斤 情所未忍
- 주 20) 令兩京道路 並種果樹
- 주 21) 種城內六街樹
- 주 22) 綠槐參差兮車馬
- 주 23) 夾道天桃滿 連鉤禦柳新
- 주 24) 당송팔대가는 당나라의 韓愈, 柳宗元와 송나라의 歐陽修, 蘇句, 蘇軾, 蘇轍, 王安石, 曾鞏.
- 주 25) 柳州柳刺史 種柳柳江邊
- 주 26) 麻城縣令張毅 植萬松於道周以庇行者 且以名其亭
- 주 27) 仲甫課民栽柳蔭行路 郡人德之 名爲補闕柳
- 주 28) 又植松七百裏以庇道路 閩人刻碑紀德
- 주 29) 大汗曾命人在使臣及他人所經過之壹切要道上種植大樹 各樹相距兩三步 俾此種道旁皆有密接之極大樹木 遠處可以望見 俾行人日夜不至迷途
- 주 30) 欽奉聖旨諭...自大都隨路 州 縣 城郭周圍並河渠兩岸 急速鋪道店側 畔 各隨地宜 官民栽植榆柳槐樹...不得吝縱頭疋咽咬 亦不得非理斫伐
- 주 31) 大道兩側分植喬松(중략) 松之夾道者七十裏
- 주 32) 入潼關 則驛路既平 垂楊夾道 李梨參差矣
- 주 33) 復緣河堤鑿井樹木 以便行人
- 주 34) 於城河兩岸多栽樹株 以護河堤
- 주 35) 兩岸俱植垂柳十餘萬本 其盤根可以固堤
- 주 36) 百裏平原經雨綠 兩行高柳東天青
- 주 37) 兩行出塞柳 壹帶赴城山
- 주 38) 新栽楊柳三千裏 引得春風度玉關
- 주 39) 太祖嘗令於瓦橋壹帶南北分界之所 專植榆柳 中通壹徑 僅能容壹騎(중략) 童貫爲宣撫 統兵燕 雲 悉命剪薙之 逮胡(遼) 馬南驚 遂爲坦途
- 주 40) 宋太宗後 宋遼關系日趨緊張 在河北沿路邊開挖塘泊 廣植榆柳
- 주 41) 因修建城市建築而砍伐堤岸防護林, 宋神宗就此事發布了保護堤岸林的詔令: '黃河向著堤岸榆柳, 自今不許采伐.'
- 주 42) 野廬氏掌達國道路 至於四畿 比國郊及野之道路 宿息 井 樹
- 주 43) 掌修城郭 溝池 樹渠之固
- 주 44) 掌山林之政令 物爲之厲而爲之守禁 仲冬斬陽木 仲夏斬陰木 凡服粗斬季材 以時入之 令萬民時斬材 有期日 凡邦工入山林而掄材 不禁凡竊木者 有刑罰

- 주 45) 承秦 曰將作少府 景帝改爲將作大匠 掌脩作宗廟 路寢 宮室 陵園木土之功 並樹桐梓之類列於道側
- 주 46)三公九卿: 진한시기 설치한 관직제도,三公:丞相(행정장관),太尉(군사장관),禦史大夫(감찰 문무백관),九卿:奉常(종묘 제사의 예의),郎中令(황제의 시종 경비원),衛尉(궁정의 경비원),太僕(궁정의 수레와 말),廷尉(사법),典客(소수민족과 외교),宗正(황제 종족의 사무),治粟內史(재정과 조세),少府(국가 산업 재무담당)이다. 將作少府는 九卿 아래에 있는 관직 중 하나.
- 주 47) 三省六部: 수나라 관직제도,三省: 中書省, 門下省, 尙書省, 六部: 吏, 戶, 禮, 兵, 刑, 工.
- 주 48) 賦既開湖 因積葑草爲堤 相去數裏 橫跨南 北兩山 夾道植柳 林希榜曰 蘇公堤 行人便之 因爲賦立祠堤上
- 주 49) 민간 유행어:西湖景致六吊橋, 壹株楊柳壹株桃

REFERENCES

- [1] Forest Service(2009), Research report of urban streetscape improvement plan.
- [2] 羅柱環, 汪子春(1986), 略述我國古代行道樹的起源和發展, 『西北大學學報』16(1): 115-121.
- [3] 遊修齡(1996), 槐柳與古代的行道樹, 『中國農史』, 15(4): 87-90.
- [4] 劉錫濤(1999), 中國古代行道樹和護堤林, 『甘肅林業』, 6(2): 36.
- [5] 鄭輝(2013), 中國古代林業政策和管理研究, 北京林業大學 博士學位論文.
- [6] Park, Y. J. and Kim, T. K.(2000), Establishment of Roadside Tree Planting System in Kangnung,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of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28(5): 93-103.
- [7] Forest Service(2003), Composition and Management trick of Street Tree.
- [8] Seoul City(2009), Composition and Management of Street Tree by Seoul.
- [9] 左丘明(BC 403-386), 『左傳』 昭公十六年
- [10] 管仲(BC 723-645), 『管子』
- [11] 李耳(BC 571-471), 『道德經』
- [12] 墨翟(BC 468-376), 『墨子』
- [13] 孟軻(BC 372-289), 『孟子』
- [14] 莊周(BC 369-286), 『莊子』
- [15] 司馬遷(BC 93), 『史記』 夏本紀
- [16] 韓非(BC 281-233), 『韓非子』 外儲說左上·說五
- [17] 左丘明(BC 450), 『國語』 周語·中
- [18] 左丘明(BC 450), 『左傳』 襄公九年
- [19] 呂不韋(BC 239), 『呂氏春秋』 卷三·先己
- [20] 班固(83), 『漢書』 卷五十壹·賈鄒枚路傳·第二十壹
- [21] 劉向(BC 77-6), 『新序』 善謀下
- [22] 司馬遷(BC 93), 『史記』 李將軍列傳
- [23] 房玄齡(648), 『晉書』 卷壹壹三·載記·第壹三
- [24] 令狐德棻(636), 『周書』 列傳第二三·韋孝寬傳
- [25] 魏征(656), 『隋書』 卷二四·誌第壹九
- [26] 杜牧(803-852), 『隋堤柳』
- [27] 白居易(772-846), 『隋堤柳』
- [28] 董誥(1814), 『全唐文』 批斫槐樹牒文
- [29] 王溥(961), 『唐會要』 卷六八
- [30] 王欽若(1010), 『冊府元龜』 卷一四
- [31] 王維(703-761), 『登樓歌』

- [32] 曹松(830-903), 『武德殿朝退望九衢春色』
- [33] 呂溫(771-811), 『嘲柳州柳子厚』
- [34] 蘇軾(1037-1101), 『萬松亭·并序』
- [35] 脫脫, 阿魯圖(1345), 『宋史』卷二六六·列傳第二五·辛仲甫傳
- [36] 脫脫, 阿魯圖(1345), 『宋史』卷三二零·列傳第七九·蔡襄傳
- [37] Jim, K. J. and Dai S. Y. 譯(陳開俊, 戴樹英, 1981), 『The Travels of Marco Polo(1298)』, 第二卷·第九十九章, 福建科學出版社.
- [38] ?(1322), 『元典章』, 戶部九
- [39] 宋謙, 王禕(1370), 『元史』誌第三七·百官三
- [40] 徐霞客(1641), 『徐霞客遊記』楚遊日記
- [41] 徐霞客(1641), 『徐霞客遊記』遊太和山日記
- [42] 張廷玉(1739), 『明史』陳瑄傳
- [43] ?(1628), 『明實錄』, 明世宗實錄
- [44] 徐保字(??-??), 『平羅記略』
- [45] 譚嗣同(1865-1898), 『自平涼柳湖至涇州道中』
- [46] 譚嗣同(1865-1898), 『別蘭州』
- [47] 楊昌浚(1825-1897), 『左公柳』
- [48] 李誌英, 楊洋(2016), 『民國初期廣州行道樹建設對社會治理的啓示』, 社會治理, 9(5): 121-129.
- [49] 李寅恭(1948), 『行道樹』正中書局.
- [50] 戴聖(80), 『禮記』月令.
- [51] 長孫無忌(649-655), 『永徽律疏』卷第二十七·雜律·凡壹十八條
- [52] 王溥(961), 『唐會要』
- [53] 王明清(1127-1202), 『揮塵後錄』後錄卷之壹
- [54] 中國國家林業局(2016.12), 『林業史話』, 第六卷·宋遼金元時期林業的快速發展.
- [55] 劉天和(1479-1545), 『溝小集』
- [56] 周公旦(?-BC 1105), 『周禮』秋官司寇 第五·野蘆氏
- [57] 周公旦(?-BC 1105), 『周禮』夏官司馬·掌固
- [58] 周公旦(?-BC 1105), 『周禮』地官司徒·山虞
- [59] 范曄(488), 『後漢書』誌第二七·百官四
- [60] 杜佑(735-812), 『通典』職官
- [61] 房玄齡(648), 『晉書』誌第十四·職官誌
- [62] 魏征(656), 『隨書』卷二六·誌第二八·百官上
- [63] 歐陽修 外 3名(1060), 『新唐書』卷四六·誌第三六·百官
- [64] 張廷玉(1739), 『明史』卷七二·誌第四八·職官誌
- [65] <http://www.zgjmg.com/pois/subpage/history/4>
- [66] 杜牧(803-852), 『阿房宮賦』
- [67] 脫脫, 阿魯圖(1345), 『宋史』卷九七·誌第五〇·河渠七

원 고 접 수 일: 2018년 1월 14일
 심 사 일: 2018년 3월 5일 (1차)
 : 2018년 3월 19일 (2차)
 게 재 확 정 일: 2018년 3월 19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